

‘스승 얻는 이야기’로 읽는 〈전우치전〉

홍현성*

〈차례〉

1. 서언
2. 스승 없는 도력과 도술
 - 1) 어찌다가 얻은 도력
 - 2) 제멋대로 부린 도술
3. 서경덕 제자 도사의 의미
4. 결언

〈국문초록〉

이 글은 <전우치전>을 ‘스승 얻는 이야기’라는 관점에서 읽었다. 전우치는 서경덕 제자 도사로서 영주산에 입산했다. 영주산은 전우치가 전생에 채약선동으로 머물던 선계였다. 따라서 <전우치전>은 직강한 전우치가 스승을 만나 선계로 귀환하는 서사였다.

작중 전우치는 도술을 부려 세상을 소란케 했다. 소란은 여우의 영향이 아닌, 미숙한 ‘성정’과 ‘스승의 부재’에 기인했다. 미숙한 성정에 더해 스승이 없던 까닭에 전우치는 제멋대로 도술을 부렸다. 도술 행각은 놀림·도움·다스림으로 나뉘었다. 세 가지 성격의 삼화로써 잘한 일과 못한 일, 장단점을 고루 형상했다. 이로써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감발할 스승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전우치를 보는 시각은 분열적이었다. 경관37장본이 출간됨으로써 전우치가 별인 도술 행각은 ‘스승의 부재’에 따른 ‘철없던 행동’으로 통합되었다. 경관37장본을 통해 전우치는 서경덕 제자 도사이자 도맥 일원으로 자리매김했다.

서경덕, 스승, 영주산, 전우치, 전운치, 전운치전, 천서(天書), 호정(狐精)

* 한국학중앙연구원 전임연구원

1. 서언

<던운치전>(이하 <전우치전>)¹⁾ 속 전운치(이하 전우치)는 이채롭다. 전우치는 여느 주인공과 달리, 바른 행동에 골몰하지 않는다. 그는 노모를 봉양하고자 임금을 속여 황금들보를 앗고 친구를 위해 과부를 납치한다. 그렇다고 사리사욕을 좇는 인물도 아니다. 전우치는 누명 쓴 이를 신원하고 대도 염준을 다스려 조정을 돕는다.

전우치 형상은 문헌마다 달랐다. 전우치를 기록하는 관점은 분열적이라 하겠는데, 이는 이야기 전승 국면에 기인했다. 정환국이 지적했던 것처럼²⁾ 전우치는 정치 국면이 전환되며 좌술(左術)로 민중을 미혹했던 인물 혹은 선술(仙術)에 뛰어났던 이인으로 고쳐 자리매김했다. 여기에 이적(異蹟)을 신이하게 여겼던 계층과 흑세무민으로 치부했던 계층 사이 상반된 시각이 더해졌다.³⁾ 양단 형상이 함께 고착되며 전우치는 흑세하는 환술가면서, 대단한 도술가로 전승되었다.

<전우치전>은 종래 ‘전우치 이야기’를 자양분 삼았다.⁴⁾ 그 결과 <전우치전> 속 전우치는 도술을 써 세상을 시끄럽게 하다가 불쌍한 이를 돕는 ‘분열적 모습’을 보였다. 실상이 이렇다 보니, 주인공 전우치를 바라보는

1) 대상 텍스트는 경판37장본 『던운치전』(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청구기호: D7B 120)을 교주한 『홍길동전·전우치전』(김현양 옮김, 문학동네, 2010)이다.

<전우치전> 이본 가운데 경판37장본 『던운치전』 계열이 먼저 나타났다. 그 시기는 대략 1847년 이전이었다. 문범두, 「<전우치전>의 형성과정과 이본간의 변모양상」, 『문학과 언어』 7, 한민족어문학회, 1990, 228~233쪽.

2) 정환국, 「전우치(田禹治) 전승의 굴절과 반향」, 『민족문화사연구』 41, 민족문화사학회, 2009, 213~239쪽.

3) 이종필, 「田禹治 전승의 양가적 表象과 그 역사적 맥락」, 『어문논집』 75, 민족어문학회, 2015, 33~56쪽.

4) 이현국, 「<전우치전>의 형성과정과 이본간의 변모양상」, 『문학과 언어』 7, 문학과언어연구학회, 1986, 143~162쪽; 정환국, 앞의 논문, 223~231쪽.

시각도 양분되었다. 선행연구 가운데 조혜란은 일사본 <전우치전> 전우치를 두고 공의가 아닌 ‘주관적 협의(俠義)’를 실천하는 인물로 봤다.⁵⁾ 또 안창수는 전우치가 ‘사회의식의 부재’를 보이며, 민중영웅 면모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다고 봤다.⁶⁾ 반면, 최윤희는 모순된 사회를 전복할 능력을 갖춘 인물로 봤다.⁷⁾

선행연구 덕분에 <전우치전> 속 ‘도술 행각’에 담긴 의미는 여러모로 조명되었다. 그러나 도술 행각을 두고 민중영웅에 부합하는지를 따지는 논의에 치우쳐, 서사를 통괄할 관점을 마련하는 데 미진한 부분이 없지 않았다. 특히, 선행연구는 전우치가 영주산에 입산하는 결말을 치밀하게 따지지 않았다.

물론, 최윤희는 결말을 두고 전우치를 “언제든 다시 살아날 수 있게 한 것”이자 전우치 방식의 저항이 지속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⁸⁾ 봤다. 유편이 아닌 스승 서경덕과 동행한 입산이므로, 이 견해는 일견 타당했다. 그러나 세상을 소란케 했던 방식을 서경덕 ‘제자’ 전우치가 지속할지 단언은 어렵겠다.

결말은 서사 성격을 규정한다. 결말에 이르러 주인공 행적에 담긴 의미는 확정된다. 서경덕이 전우치를 ‘위리안치’했다거나, 그가 스스로 떠나 세속과 선계 양쪽에서 유리되었다면 <전우치전> 속 ‘도술 행각’에 전혀 다른 의미가 담길 것이다.

5) 조혜란, 『민중적 환상성의 한 유형: 일사본 <전우치전>을 중심으로』, 『고소설연구』 15, 한국고소설학회, 2003, 55~81쪽.

6) 안창수, 『<전우치전>으로 살펴본 영웅소설의 변화』, 『한국문학논총』 59, 한국문화회, 2011, 73~116쪽.

7) 최윤희, 『<전우치전>의 구성과 의미에 대한 재고찰』, 『우리어문연구』 48, 우리문화회, 2015, 163~185쪽.

8) 위의 논문, 180쪽.

<전우치전> 결말에 서경덕은 여우굴을 찾아 구미호를 잡자고 말한다. 그런 다음 둘은 구름을 타고 영주산에 입산한다. 영주산은 그가 전생에 채약선동으로 머물던 선계다.⁹⁾ 영주산에서 적강(謫降)해 영주산으로 입산했으니, 전우치 행적은 환원을 그린다. <전우치전>은 선계 영주산에서 적강해 속세에서 멋대로 굴던 전우치가 스승을 만나 선계로 귀환하는 이야기다.

그런데 귀환은 성사되지만, 전우치는 예전 지위를 계승하지 않는다. 채약선동이 아닌, 서경덕 제자 도사로서 귀환하기 때문이다. 적강이 ‘하늘의 주재자’에 의해 이뤄졌다면, 귀환은 ‘스승 서경덕’에 의해 성사된다. 따라서 귀환의 서사는 ‘스승’을 열쇠말 삼아 따져볼 수 있다. 후술하겠지만, 선계로 귀환하기까지 서사는 ‘스승의 부재’ ‘스승의 필요성’ ‘스승과 조우’ ‘스승을 통한 귀환’으로 순차 구축된다.

이 글은 상기한 문제의식 아래 <전우치전>을 ‘스승을 얻는 이야기’로 보고 서사를 분석하겠다. 이로써 민중영웅 여부를 따지는 데 치우쳤던 연구 시각을 재고하겠다. 또 도술 행각을 검토해 서사 전반을 이해할 관점을 마련하겠다. 최종적으로 경판37장본이 지니는 의의를 조명하겠다.

논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2-1장에서 전우치가 도력과 도술을 얻는 과정을 살피겠다. 여우의 책이 나오는 <도술이 유명한 소강절>(광동서국, 1926), 호정이 나오는 <도술이 유명한 서화담>(광동서국, 1926)과 비교해 <전우치전> 해당 삽화의 특징과 의미를 검토하겠다. 2-2장에서 도술 행각의 양상과 의미를 살피겠다. 도술 행각을 구성한 삽화는 ‘놀림’ ‘도움’ ‘다스림’으로 나뉜다. 이들 삽화는 작가가 지닌 문제의식을 드러낸다. 3장에서 논의를 종합해 서사 속 사제 관계의 의미를 살피겠다.

9) 김현양 옮김, 『홍길동전·전우치전』, 문학동네, 2010, 206쪽. 소조는 영주산의서 최약했던 선동이러니 텨상의 득뢰하여 인간의 넉치시되.

2. 스승 없는 도력과 도술

1) 어찌다가 얻은 도력

전우치는 전생에 영주산 채약선동이였다. 전생 선동(仙童)이었던 까닭에 전우치는 어려서 “문일지십”할 만큼 영특했다. 또 그는 부친상을 지효(至孝)로 치러 “향당이 탄복”(207쪽)할 만큼 착했다. 이후 호정(狐精)을 먹고 천서를 익힌 전우치는 도술을 부려 세상을 소란케 했다. 선행연구는 이를 두고 호정에 취한 결과로¹⁰⁾ 봤다.

전우치가 호정에 취해 전과 달리 행동했다는 시각은 일견 타당하다. 고전소설 속 여우는 대개 “교활하고 영리하며, 인간을 잘 속”이는¹¹⁾ 요괴로 나타나며 호정은 그러한 여우요괴가 만든 구슬이기 때문이다. 다만, 좌충우돌하는 도술 행각을 두고 호정만 근인(根因)으로 볼지 논의할 여지가 있다. 작중 전우치는 호정을 먹고 이렇다 할 소란을 일으키지 않는다. 스승 윤공은 호정을 비범한 능력을 부여하는 구슬이라고 설명한다. 이제 살펴볼까지만, <전우치전> 영향을 받아 쓰인 구활자본 고소설 속 호정은 충명을 절등하게 한다. 작중 전우치가 벌인 소란은 호정이 아닌, 다른 데 기인했을 수 있다.

<도술이 유명한 서화담>(이하 <서화담전>)은 <전우치전> 인기에 편승해 나온 구활자본 고소설이다. 이 작품에도 ‘호정’이 나온다. 작중 서화담은 제자 허운에게 호정을 삼키라고 말한다. 서화담은 “구술이 네 입속에 들어오거든 사색을 뵈이지 말고 몰으는 곁에 얼는 생키고 오면 성례할 도리가 차〰 생키리라”¹²⁾고 말한다. 다음은 서화담이 허운에게 여우와 호

10) 안창수, 앞의 논문, 98쪽; 이후남, 「고전소설의 요괴 서사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2018, 132~138쪽.

11) 이후남, 위의 논문, 63쪽.

정을 설명하는 대목이다.

여호가 여러 백 년을 묵으면 아람다운 계집을 홀이여 죽여서 그 피를 썰어 먹고 그 계집의 뼈골을 뒤집어 쓰고 단이면서 어엿분 남자를 홀이여 교합하여 양귀를 밧어 영〃 사람이 되려함이나 소달기의 일을 네가 몰으느냐 그 구슬은 호정이나 이 호정을 먹으면 총명이 절당한 법이라¹³⁾

<전우치전>, <서화담전> 속 여우는 미녀로 변신해 남자(전우치, 허운)를 홀린다. 또 두 작품 속 여우 모두 호정을 지닌다. 호정의 효용도 비슷하다. <전우치전> 호정은 “털문 다리를 통하며 디살 일흔두 가지 변화를”(210쪽) 부릴 능력을 준다. <서화담전> 호정은 복용하면 “총명이 절등”한다. 두 작품은 비슷한 인식 아래 ‘여우’와 ‘호정’을 소재로 쓴 셈이다.

다만, 여우가 지닌 부정적 모습은 <서화담전>, 호정의 효용은 <전우치전>이 더 구체적이다. <전우치전>은 여우를 두고 이렇다 할 설명이 없다. <서화담전>은 “계집을 홀이여 죽여서 그 피를 썰어먹고 그 계집의 뼈골을 뒤집어 쓰고” 다닌다고 나온다. <서화담전>에 이르러 여우의 부정적 형상은 더 심화했다고 볼 수 있다.

여우의 부정적 형상과 호정이 연동한다면, <서화담전> 속 호정은 아주 부정한 구슬일 터이다. 그러나 서화담은 호정을 삼키라고 한다. 또 허운은 호정을 먹고도 착실하다. <전우치전>과 <서화담전> 사이 교집합을 고려하면, 호정은 광약(狂藥)이 아닌 큰 능력을 부여하는¹⁴⁾ 신비한 구슬이다.

12) 『(舊活字本) 古小說全集』 21, 인천대학교, 1984, 246쪽(『서화담전』, 광동서국, 1926, 38면). *이하 『(舊活字本) 古小說全集』 쪽수로 표기한다.

13) 위의 책, 248~249쪽.

14) 구비문학의 ‘여우구슬’도 비범한 능력을 부여한다. 정운채, 『<여우구슬>과 <지네각시> 주변의 서사지도』, 『문학치료연구』 13, 한국문학치료학회, 2009, 327~362쪽.

그런데 <전우치전> 속 윤공은 “구슬을 아스다가 날를 비라”(210쪽)고 말한다. 호정을 가져오라는 당부이자, 전우치에게 과업(課業)을 부여한 것이다. 과업을 부여한 의도는 문면에 없다. 호정을 가져오라던 당부를 전제 삼아 고려할 수 있는 의도는 세 가지다. 첫째, 윤공이 먹으려 했다. 둘째, 나중에 주려 했다. 셋째, 계속 보관하거나 파괴하려 했다.

윤공이 반동인물(Antagonist)이면, 첫째 의도일 것이다. 그러나 윤공은 이름난 선비 전숙(전우치 부친)의 친우다. 윤공은 문장이 광박하고 의리가 있어 망우(亡友)의 아들 전우치를 가르친다. 또 그는 명견만리하는 식견을 지녀 전우치와 여우가 교합한 사실을 보지 않고도 안다.¹⁵⁾ 이를 종합하면, 윤공은 위계로써 호정을 뺏을 ‘반동인물’은 아니다. 문장이 광박하고 망우의 아들까지 가르쳤으니 윤공은 학식과 덕을 갖춘 선비로 보는 게 타당하겠다.

둘째, 셋째 의도는 호정이 전우치에게 어울리지 않다는 인식 아래 있다. 둘째 의도는 수신(修身)이 완숙하지 않다는 인식, 셋째 의도는 선비가 먹을 게 못 된다는 인식 아래에 있다. 나중에 주려고 했던 파괴하려 했던, 윤공은 당시 전우치에게 호정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셈이다.

이 시절 전우치는 성욕에 따라 비례를 행하면서도 주저하지 않는다. 그는 하룻길에 소녀와 다시 마주치자, 방탕한 마음을 먹는다. 소녀가 “용모는 옥 같으며 아릿자온 티되”(208쪽) 보였기 때문이다. 전우치와 소녀는 그날 만나 대숲에서 “혼연이 교합”(209쪽)한다. 이튿날 소녀를 다시 만난 전우치는 “반겨 손을 잡고 즐”길(209쪽) 뿐, 반성하지도 뒷날을 걱정하지도 않는다.

이성(異性)으로 변신한 여우와 주인공이 길에서 마주치는 이야기는 조

15) 김현양 옮김, 앞의 책, 209쪽. 윤치 반겨 …… 호고 서당의 나아기니 윤공 왈 네 오다가 너식을 범했스니 글을 비화도 천디 조화를 통치 못하리니.

선과 중국에 널리 향유된다. 서사 삽화로서 이 이야기는 인물 성정을 드러낸다. 번역소설 <동유기>에도¹⁶⁾ 비슷한 내용이 나온다. <동유기> 속 여우는 미장부(美丈夫)로 변신해 역생 아내를 유혹한다. 다음은 여우가 역생 아내를 유혹하는 장면이다.

이는 요괴잇 녀호라 항상 이곳의 잇셔 남즈를 맞다면 미녀가 되고 녀인을 맞다면 남즈 되어 사름을 흘여 교합호고 그 정신을 마셔 사름을 만히 상히오 논지라 …… 닉 나히 청춘이오 집이 가장 부요하니 날을 쓰라오면 백년화락 호고 부귀랄 누릴 거시니 엇지 즐겁지 아니호리오 부인이 디로호여¹⁷⁾

<전우치전> 전우치, <서화담전> 허운, <동유기> 역생 아내는 같은 상황에 놓였다. 그러나 대응은 달랐다. 전우치는 등갯길에 지나쳤으나 하갯길에 수작하고 교합했다. 허운은 첫 대면 뒤 소녀를 계속 떠올리고 이튿날 망설이다가 말을 건넸다. 역생 아내는 듣자마자 화를 냈다. 세 사람은 저마다 지닌 성정에 따라 다르게 대응했다.

따라서 전우치 성정은 만난 날 별인 ‘교합’으로써 형상되었다. 그날 만나 대숲에서 교합했으니 전우치는 숙고 없이 욕망을 따르는 성정이었다. 성정이 이러하므로, 호정에서 얻은 능력을 욕망에 따라 쓸 일은 볼 보듯 뻔했다.

스승 윤공은 전우치와 여우가 교합한 일을 단박에 알았다. 혜안을 지녀 보지 않은 일도 알았으니 전우치 성정도 익히 알았을 터였다. 호정 효용

16) 『동유기』 원전은 方汝浩가 쓴 『掃魅敦倫東度記』이다. 『동유기』는 吳原泰가 쓴 『東遊記』(원제: 『上洞八仙傳』)와 상관없는 작품이다. 김영,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동방학연구소에 소장된 번역필사본 <동유기>에 대한 고찰」, 『中國語文論叢』 83, 중국어문연구회, 2017, 61~81쪽.

17) 박재연, 김영 교주, 『동유기』, 이회, 2004, 82쪽.

을 알았던 윤공은 전우치 성정을 고려해 삼키지 말고 가져오라고 당부했던 것이다.

전우치는 스승 윤공이 한 당부를 지키려다 당황해 호정을 삼킨다. 윤공은 호정을 삼킨 전우치 앞날을 예언하며 “이후 스는 조심하라”고(201쪽) 말한다. 이 말은 충동적 성정에 큰 능력을 얻었으니, 행동을 살얼음판을 밟듯 조심하라는 의미다. 요컨대, 호정 습득 삽화는 거리낌 없이 교합하는 장면과 당황해 호정을 삼키는 장면을 통해 전우치의 미숙한 성정을 형상한다. 이 삽화에서 전우치는 시종 미숙한 모습을 보인다.

이후 전우치는 급제해 진사가 되고 노모를 봉양하며 대과(大科)를 준비한다. 몸속에 호정이 있지만, 그는 말썽을 피우지 않는다. 전우치는 여우굴에서 천서를 앗아 익힌 뒤에야 세상을 소란케 한다.

전우치가 여우굴에서 책을 얻은 일화는 널리 회자되었다. 《해동이적(海東異蹟)》에 따르면, 여우굴에서 책을 얻은 전우치는 한양 아낙네를 희롱하고 다녔다.¹⁸⁾ 또 《죽창한화(竹窓閑話)》, 《잡기류초(雜記類抄)》에서 전우치는 찾아온 소년(여우)을 강박해 천서를 얻었다.¹⁹⁾ 《청장관전서(靑莊館全書)》에 따르면 전우치는 흰 여우를 포박한 뒤 강박해 《소서(素書)》를 앗아 익혔다.²⁰⁾

18) 홍만중 저, 황윤석 증보, 신해진·김석태 역주, 『증보 해동이적』, 경인문화사, 2011, 162~163쪽. 세상에서 말하기를 “전우치는 젊었을 때 천 년 묵은 여우의 무덤 속에서 책을 얻어 그것으로 환술을 익히고 한양의 재상 집 부녀자들과 두루 음분을 저질렀다. ……”고 했다.

19) 『잡기류초(雜記類抄)』, 『전우치전(田禹治傳)』(박희병, 정길수 편역, 『낮선 세계로의 여행』, 『전우치전』, 돌베개, 2007, 69~70쪽). 정환국, 앞의 논문, 226쪽에 따르면 소년(여우)을 강박해 책을 익히는 이야기는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죽창한화(竹窓閑話)』에도 나온다.

20) 이덕무, 『청장관전서(靑莊館全書)』 권68, 『전우치(田禹治)』. …… 狐取一素書獻之 遂放狐 披視 皆靈詮秘呪 遂研硃點其易悟者數十段 俄見其家老婢 被髮痛哭 來傳其父之訃 禹治棄其書 蒼黃出門 則老婢不知去處 禹治始覺爲妖狐所賣弄 仍

전우치와 여우가 절에서 부부연을 맺고 친합(親合)하는 내용은 <전우치전> 이전 문헌에서 찾기 어렵다. ‘세금사에서 친합’은 <전우치전> 작가가 서사 흐름을 고려해 고안한 장면이다. 이 장면은 호정을 삼키는 삽화와 긴밀하게 연계된다.

먼저 따질 것은 전우치가 여인 본체를 알았는지 여부다. 세금사에서 여인을 본 전우치는 “신혼이 황홀하여”(213쪽) 거리낌 없이 수작한다. 혼약을 맺자 전우치는 “마음이 방탕하여 인하여 친합”(214쪽)한다. 매력에 반해²¹⁾ 의심 없이 수작하고 이어서 친합 곧 잠자리를 갖은 것이다.

그런데 전우치는 친합한 뒤 술을 강권한다. 고압적 태도라 처음과 아주 다르다. 여인이 취해 뿔아떨어지자 전우치는 “그제야 녀즈의 옷을 벗기고 쥬필노 여호의 가슴의 진언을”(215쪽) 쓴다.

‘매력’에서 ‘의심’으로 바뀌는 감정 변곡점에 ‘친합’이 자리한다. 윤공 제자 시절 전우치는 소녀로 변신한 여우와 교합한 경험이 있다. 세금사에서 친합한 일은 상대가 여인이라는 차이만 있을 뿐, 그 본체가 여우인 점은 같다. 전우치는 세금사에서 여인과 친합하며, 윤공 제자 시절 했던 교합과 비슷한 점을 깨달은 것이다.²²⁾ 전우치가 태도를 돌변한 까닭이다.

요컨대, ‘세금사 친합 장면’은 전우치 성정이 여전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는 윤공 문하 시절과 다를 바 없이 여전히 성욕에 휘둘린다. 또 ‘호정 습득 삽화’는 소녀로 변신한 여우와 동침하는 내용을 선행해 전우치가 세금사에서 친합한 뒤 여인 본체를 의심하는 전개에 개연성을 부여한다.

還收狐訣 狐只留硃點者 餘皆割去 禹治後以幻術 鳴於世 …….

21) 김현양 옮김, 앞의 책, 213쪽. 화려한 용모는 모란이 아츰 이슬을 먹음듯 선연한 티도는 슈양이 춘풍을 못 이기는 듯하미 …… 윤치 신혼이 황홀하여.

22) 애초에 전우치가 눈치 챌 수도 있다. 그러나 그는 “신혼이 황홀하”여 말을 건넸고 “마음이 방탕하”여 잠자리를 가졌다. 또 옷을 벗기고 진언을 쓴 뒤에야 부용승을 썼다. 여우인 줄 알고 일을 꾸몄다면, 뿔아떨어지자마자 부용승을 썼을 법하다.

전우치는 여우를 강박해 천서를 익힌다. 대장편소설 <범문정충절언행록>, <보은기우록>이나 <소현성록> 파생작 <영이록> 등도 그렇거니와, 고소설 속 천서나 신서(神書)는 주인공 능력을 신장하는 물품으로 나타난다. 앞서 살핀 <서화담전>에도 천서가 나온다. 또 <도술이 유명한 소강절>(이하 <소강절전>)에도 '여우가 지닌 책'은 주요 소재로 쓰인다. 주인공이 천서(혹은 신서)를 익혀 능력을 신장하는 설정은 고소설의 상투(Cliché)라 하겠다.

다음은 <보은기우록> 속 천서 습득 장면이다. 대개 고소설도 <보은기우록>과 비슷한 전개를 보인다.

싱이 관소당의 호고 두 번 절하여 텃서를 바드매 …… 동천비비라 글지 큰 거손 손바닥만 호고 저근 거손 푸리 머리만호여 다 구름과 우레 형상으로 하날 텃서로되 싱은 텃강 문명이라 비록 비호디 아녀 스스로 아라 보거늘 도인이 곁호로 조차 즈즈히 주석호니²³⁾

위연청은 하늘이 정한 운명에 따라 도인을 만나 천서를 배운다. 위연청은 인격과 총명을 두루 갖춘 인물이다. 그는 우레 모양으로 쓰인 글자를 처음 봤지만 스스로 읽는다. 도사는 위연청 곁에서 글자를 풀이해주는 역할을 하는 데 그친다.

여기서 여겨볼 게, 책을 건네는 도사(혹은 이인)다. 천서 습득 삽화에서 도사나 이인은 전달자에 머물지 않는다. 이들은 합당한 이를 알아보고 천서를 건넨다. 고쳐 말하면, 도사나 이인은 해안을 통해 검증한 인물에게 책을 준다. 전달자는 '검증자'이기도 하다.

역사적 인물도 도사나 이인에게서 천서(혹은 신서)를 받았다. 수운 최

23) 『보은기우록』 권3, 28a~28b쪽.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귀 K4-6811.

제우는 1885년 지리산에서 온 이승(異僧)에게서 천서를 얻었다. 수운은 천서를 말미암아 득도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 홍암 나철은 1906년 백전(白佺)에게서 《삼일신고(三一神誥)》, 《신사기(神事記)》를 얻고 1908년 두일백(杜一白)에게서 《단군포교명서(檀君教佈明書)》를 받았다.²⁴⁾ 수운과 홍암은 종교 지도자를 할 만한 인물이므로, 이승이나 도사가 책을 건넸던 것이다.

그런데 <전우치전>과 <도술이 유명한 소강절>(이하 <소강절전>) 속 천서 습득 삽화는 여타 고소설과 다른 점이 있다. 다음은 <소강절전>에서 소강절이 천서를 얻는 대목이다.

그제에 천년을 묵어 쏘리 아홉 가진 여호 한 아이 잇서 〃 변화가 무쌍한 바 여호의 생각에 소강절 한이만 업섯스면 저의 재조보다 나올 사람이 업는지라 강절을 홀이여 업세볼 양으로 변하여 청년 미소년이 되어 …… 책 한 권을 내여 보이는데 그 책은 호풍환후하고 괴문둔갑하는 법을 배우는 책이라²⁵⁾

소강절은 요괴가 질투할 만큼 비범한 능력을 지닌 인물로 형상된다. 여우는 호승심에 소년으로 변신해 소강절을 찾아간다. 소강절이 “오날 한 번만 그 책을 두고가라”고 부탁하자 소년은 “보기에 자미 들여 정신이 차 〃 희미하여지는”(6쪽) 줄 알고 책을 두고 간다. 소강절은 두고 간 책을 스스로 익힌다. 여타 고소설과 달리, 요괴가 지닌 호승심과 질투심을 통해 소강절의 능력을 검증한 셈이다.

<소강절전>은 ‘요괴의 질투’로 변형되었지만 ‘검증’이 나타난다. 반면 <전우치전>은 ‘검증’ 자체가 없다. 전우치는 여우를 강박해 천서를 빼앗

24) 조성두, 『수운 최제우와 홍암 나철의 영웅신화적 요소에 대한 비교연구』, 『신종교연구』 31, 신종교연구학회, 199~201쪽.

25) 『도술이 유명한 소강절』, 광동서국, 1926, 5쪽.

는다. 또 전우치는 천서를 빼앗고도 “글즈를 아라볼 길”(217쪽) 없어 구미호를 앓히고 익힌다.

앞서 말했듯, 전우치가 여우굴에서 책을 얻는 일화는 널리 회자되었다. 널리 퍼진 흥미로운 이야기였으므로 <전우치전> 작가는 이를 수용했다. 문제는 여우를 위협해 뺏는다는 설정이었다. 이로 인해 천서를 익힐 만한 ‘능력’과 ‘인격’을 갖춘 인물인지 검증이 빠졌다. 오히려 작중 전우치는 충동적 성정을 지녔다는 점에서 천서가 어울리지 않는 인물로 형성되었다. 따라서 천서를 익힐 능력을 구비하는 내용을 선행해야 했다. 바로 ‘호정’을 삼키는 삽화였다. 정리하면, 전우치는 호정을 통해 비범한 능력을 갖췄고 이를 토대로 빼앗은 천서를 익혔다.

강박해 천서를 뺏는 전개는, 세 가지 사실을 보여줬다. 첫째, 전우치는 천서를 받기에 부족한 인물이었다. 둘째, 전우치는 수련 없이 말 그대로 어찌다가 도술을 얻었다. 셋째, 전우치는 큰 힘을 얻었으나 스승이 없었다. 특히 ‘스승의 부재’는 ‘충동적 성정’과 함께 향후 그가 멋대로 도술을 부리는 동인(動因)이 되었다.

이와 관련해, 여우에게 배웠으므로 혹은 여우굴에서 얻은 책이므로, 전우치가 문제적 행각을 벌였다는 시각이 있다.²⁶⁾ 그러나 <소강절전>에서 알 수 있듯, 여우가 지녔던 책과 천둥벌거숭이 같은 행각은 연관이 없었다. 소강절은 여우가 지녔던 책을 익혔으나 품위를 잃지 않았다. <<청장관 전서>>에 나오는 흰 여우의 책은 이름도 황석공(黃石公)이 썼다는 <<소서>>였다. 그 내용은 영전(靈詮)과 비주(秘呪)였다.

물론 <<해동이적>>, <<잡기류초>> 속 전우치는 여우굴에서 책을 습득해 익힌 다음 의롭지 못한 짓을 벌였다. 그러나 당시 천서(혹은 신서)에

26) 이종필, 앞의 논문, 46쪽에서 『해동이적』 소개 전우치 이야기를 다루며 전우치 도술을 ‘여우’에게 얻어 낸 ‘부정한 힘’으로 봤다.

대한 인식을 고려하면 두 문헌에 나타난 비관은 힘의 연원이 아닌 힘을 쓰는 주체 곧 전우치의 인품에 맞춰져 있다. 책의 주인이었던 여우나 소장처였던 여우굴은 전우치가 보인 문제적 행보와 연관이 없다고 하겠다.

이제껏 전우치가 도력과 도술을 얻는 과정을 살폈다. 호정 습득 삽화에 서 ‘충동적 성장’이 나타났다. 이어서 세금사에서 친합하는 장면에서 충동적 성정은 다시 확인되었다. 또 천서를 익히는 삽화에서 검증이 빠진 채 스승 없이 도술을 얻는 점이 부각되었다. 도술은 뜻대로 다 이룰 수 있는 큰 능력이었다. 전우치는 어쩌다 큰 능력을 얻었으나 충동적 성장에 더해 곁에서 지도할 스승이 없었다. 아이가 부모 없이 ‘칼’을 쥔 꼴이었다.

2) 제멋대로 부린 도술

부리지 못하는 술법이 없자, 전우치는 환로에 나갈 뜻이 없어진다. 이후 그는 도술을 부려 세상을 소란케 한다. 여기서는 도술 행각의 양상과 의미를 살피겠다.

선행연구 가운데 변우복은 <전우치전> 속 도술 행각을 16개 삽화(Episode)로 구분했다.²⁷⁾ 변우복은 중을 본래 모습으로 돌려놓거나, 창고 물품을 되돌려놓는 것도 각각 삽화로 나눴다. 이 글은 선행연구 논의를 수용하되, 인물이나 물건을 돌려놓는 것은 삽화가 아닌 ‘장면(Scene)’으로 봤다. 장면은 해당 삽화에 부속했다.

이를테면, 한채경을 돕는 삽화 속 주요 장면은 다섯 개다. 1. 전우치가 한채경에게 돈이 나오는 족자를 주는 장면, 2. 한채경이 욕심을 부리다가 창고지기에게 잡히는 장면, 3. 전우치가 창고 물품을 개구리로 바꾸는 등

27) 변우복, 「일사본 던운치전의 도술적 성격」, 『한국어문교육』 5, 한국어문교육연구소, 1996, 45~69쪽; 변우복, 「《전우치전》 研究」, 한국교원대학교 박사논문, 1998, 31~32쪽.

소란을 일으키는 장면, 4. 한채경을 구조하는 장면, 5. 도술을 풀어 물품을 원래대로 돌려놓는 장면이다.

5는 1~4와 떨어져 있다. 5는 조정에 참여한 전우치가 선배 선전관을 꿈속에서 혼쫓내는 삽화 다음 나온다. 그렇지만 5는 별도 삽화가 아닌, 마무리 장면으로 보는 게 합당하다. 5는 한채경이 잡혔을 때 궁궐을 소란케 하려고 걸었던 도술을 나중에 풀어주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로 '중을 본래 모습으로 돌려놓는 장면'은 왕연희를 다스리는 삽화 뒤에 나오지만, 중을 꾸짖는 삽화의 마무리 장면으로 본다.

오생과 민씨가 나오는 삽화는 '신비한 죽자'와 관련되지만 둘로 나눈다. 도술 목적과 대상이 다르기 때문이다. 전우치는 죽자를 주며 오생에게 천냥을 요구한다. 오생을 우롱할 목적이다. 오생의 아내 민씨는 시기심에 죽자를 찢는다. 화가 난 전우치는 민씨를 구렁이로 만든다. 이때 도술의 목적은 질투를 다스리는 데 있다.

위에서 언급한 기준에 따라 정리한 도술 행각 삽화는 아래 표와 같다.

삽화 내용	성격
① 임금을 속여 황금들보를 얻고 체포되었다가 탈출	놀림
② 누명을 쓴 백발노인의 아들을 신원	도움
③ 돼지머리를 뺏으려던 관리를 놀라게 함	놀림
④ 과일을 먹인 뒤 선비의 성기를 없앴	놀림
⑤ 고직이 장계창 부부를 구조	도움
⑥ 한채경에게 돈이 나오는 죽자를 주고, 그가 붙잡히자 창고 물품을 바꾸는 등 소란을 피운 뒤 구조	도움
⑦ 망주석을 뽑아 매질을 당하도록 하고 허참례에서 선배의 부인을 불러옴.	놀림
⑧ 대도 엄준 일당을 토벌하고 계도.	다스림
⑨ 선전관에게 현몽해 혼쫓을 냄	놀림
*⑥ 호조 물품을 원상태로 돌려놓음	
⑩ 역모사건에 연루되자 그림 속 나귀를 타고 도주	놀림
⑪ 중을 전우치 자신의 모습으로 바꾼 뒤 삼백육십일 명 전우치를 만들어 잡힘	다스림

⑫ 왕연희 모습으로 나타나 왕연희를 구미호로 바꿨다가 돌려놓음	다스림
*⑪ 중을 본래 모습을 돌려놓음	
⑬ 미녀가 나오는 죽자를 오생에게 팔	놀림
⑭ 오생의 아내 민씨를 구렁이로 바꿨다가 돌려놓음	다스림
⑮ 동학 양봉한을 위해 과부 정씨를 납치	도움

〈표, 주요 삽화〉

삽화 성격은 놀림, 도움, 다스림으로 나뉜다. ‘놀림’으로 분류한 삽화는 도술을 부려 대상을 우롱하고 희화하는 내용이다. ‘도움’으로 분류한 삽화는 대상을 돕는 내용이다. ‘다스림’은 대상을 꾸짖고 깨치어 이끄는 내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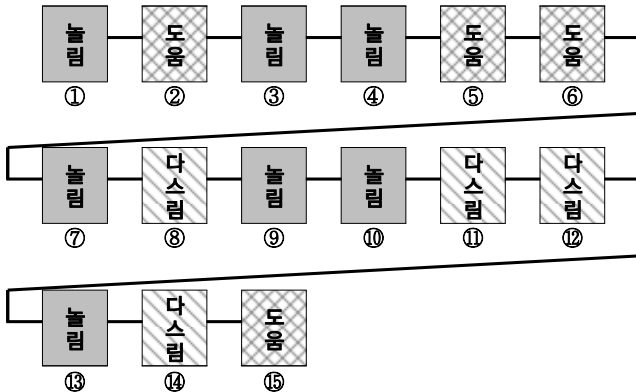
‘다스림’은 두 가지 요소가 나타난다. 첫째, 상대가 죽을 위기에 처한다. 둘째, 꾸짖고 타이르는 장면이 있다. 염준과 싸우던 전우치는 “살싱긋기를 엇지 줄연이”(246쪽) 하겠냐며 마음을 고쳐먹는다. 전우치는 염준을 잡은 뒤 꾸짖고 타이른다. 또 전우치 모습이 된 중은 처형될 위기에 처한다. 전우치는 풀려난 중을 두고 “그런 헝실을 헝치 말나”고(261쪽) 꾸짖는다. 왕연희를 구미호로 바꾸자, 노복 여럿이 달려들어 죽이려 한다. 이후 전우치는 도술을 풀어주고 “다시 이런 헝실을 말라”며(260쪽) 꾸짖는다. 민씨도 비슷하다. 민씨를 구렁이로 바꾸자, 오생은 “딴마이 이스니 죽이고져 흐노라”고(265쪽) 말한다. 전우치는 모습을 돌려 놓으며 투기하지 말라고 꾸짖는다.

이러한 공통점에 따라, 돼지머리를 뺏으려던 관리를 쫓는 삽화는 ‘놀림’으로 분류한다. 이 삽화에 상대가 죽을 만한 ‘위협’과 행동을 바꿀 ‘꾸짖음’은 없다. 다만, 관리가 쫓지 빠지게 달아나는 모습을 그럴 뿐이다. 이로써 욕심 많은 관리를 희화하는 데 그친다.

전우치가 천서를 익힌 뒤 세속에서 벌인 도술 행각은 시절에 따라 세

묶음으로 묶인다. ①~⑥은 도술을 익힌 직후 소란을 피우던 시절이다. ⑦~⑫는 조정 일원으로서 도술을 부리던 시절이다. 물론 ⑩ 이후 전우치는 조정 일원은 아니다. 그러나 왕연희와 얽힌 악연은 선전관 시절에서 연원한다. 따라서 ⑦~⑫까지 사서는 한 묶음으로 묶을 수 있다. ⑬~⑮는 서경덕을 만나기 전 도술을 부리던 시절이다. 이 시절 도술 행각은 조정과 무관하다. 세 시절은 편의상 진사, 선전관, 포의로 명명하겠다.

표에서 드러났듯, 삽화 배치는 일정한 ‘반복’을 보인다.²⁸⁾ 진사 시절(①~⑥)은 ‘놀림’과 ‘도움’, 선전관 시절(⑦~⑫)은 ‘놀림’과 ‘다스림’이 주를 이룬다. 포의 시절(⑬~⑮)은 ‘놀림’ ‘다스림’ ‘도움’이 한 번씩 나온다. 이를 정리하면 그림과 같다.



<그림, 삽화 배치도>

진사, 선전관, 포의 시절 모두 ‘놀림’으로 시작한다. 각 시절 첫머리에 놓인 ‘놀림’은 전우치의 정체성을 보여준다. ‘놀림’은 세 시절에 걸쳐 빠짐

28) ①은 임금을 우롱하는 삽화, 체포 뒤 달아나는 삽화로 나눌 수 있다. 이 경우 ⑦ 역시 망주석을 빼내 매를 맞게 하는 삽화, 허참례에 선배 부인을 부르는 삽화로 나뉜다.

없이 나오며 신분 변화에 상관없이 주요 삽화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작중 전우치는 기본적으로, 사람을 우롱하고 세상을 소란케 하는 인물로 형상된다.

‘놀림’ 다음 ‘도움’이나 ‘다스림’이 나온다. 이어서 ‘놀림’을 두 차례, 다시 ‘도움’이나 ‘다스림’을 두 차례 반복한다. ‘도움’은 진사, ‘다스림’은 선전관 시절 주로 나타난다. 정연한 배치는 <전우치전> 작가가 삽화를 마구잡이로 나열한 게 아니라, 문제의식에 따라 ‘안배’한 사실을 보여준다.

임금을 속여 황금들보를 얻는 삽화는 도술 행각의 첫머리를 장식한다. 그런데 이 삽화는 본래 중국쪽 신선담(神仙譚)이다. 《만력야획편(萬曆野獲編)》은 송 휘중,²⁹⁾ 《오잡조(五雜俎)》는 명 성조가 우사(羽士)에게 속는³⁰⁾ 이야기로 나온다. 이야기 흐름은 같지만, 세부 표현은 차이가 없지 않다. 이를테면, 《만력야획편》은 은으로 꾸민 마룻대[上梁], 《오잡조》은 황금 들보[梁]로 나온다.

《오잡조》 속 이야기는 조선에 들어와 전우치 일화로 부회된다. 시기는 미상이다. 다만, 이익이 《성호사설(星湖僊說)》에 《오잡조》 신선담을 기재하면서³¹⁾ 전우치와 연결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이 당시 전우치 일화는 별개로 취급되었다. 또 이규경이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에서 같은 이야기가 전우치 일화로 있다고 한 점,³²⁾ 경판37장본 간행 해가 1847년인 점을 고려하면 《오잡조》 신선담은 19세기 전반

29) 沈德符, 『萬曆野獲編』卷二十七, 「月中仙人」.

30) 謝肇淛, 『五雜俎』卷一, 「天部」一.

31) 이익, 『성호사설(星湖僊說)』 인사문(人事門), 「우사금량(羽士金梁)」. 皇明永樂皇帝嘗燕坐 見一羽士鶴駕而下曰 上帝建白玉殿 遣臣於陛下 索紫金樑一枝 長二丈 某月日來取 言畢 騰空而去 上驚異欲從之 …….

32) 이규경,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 인사편(人事篇) 기예류(技藝類) 잡기(雜技), 「미지존변증설(迷至尊辨證說)」. …… 東國有田禹治善幻鳴 嘗以天求黃金樑瞞世云云 至見於俗傳奇中 與永樂時道士事相同 可怪.

전우치 일화로 부회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해당 일화를 도술 행각 '첫머리'에 둠으로써 전우치는 다음과 같은 인물로 나타난다. 첫째, 전우치는 혹세하는 인물이다. 우롱하는 대상이 세속 최고위라 할 임금이다. 이는 전우치를 세속 질서를 어지럽히는 인물로 낙인찍는 이유가 된다. 작중 서경덕은 '기군(欺君)'을 죄로 꼽아 크게 꾸짖는다. 둘째, 전우치는 권력에 영합하지 않는 인물이다. 전우치는 임금마저 우롱한다. 셋째, 전우치는 충동적이며 가볍게 운신하는 인물이다. 전우치는 황금 들보를 돈으로 바꿀 일은 고려하지 않는다.

'놀림'은 기본적으로 크고 작은 권력을 권 이들을 회화하는 내용이다. 작중 전우치는 임금, 선배 관료를 우롱한다. 권력을 무시하는 모습이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 출세욕을 말미암아 타락하지는 않을 것이란 사실을 보여준다.³³⁾ 이는 장점이다. 다만, 전우치는 도술을 써 대상을 회화하는 데 머문다. 거시 안목 없이 일회적 웃음을 추구한다고 하겠는데, 이는 좋은 능력을 제대로 쓸 줄 모른다는 면에서 단점에 해당한다.

진사 시절 '도움' 역시 '놀림'과 마찬가지로 전우치를 다각도로 형상한다. '도움'은 이타적 면모만을 부각할 법하나, 그렇지 않다. '도움'은 전우치가 지닌 충동적 성정 역시 형상한다.

전우치는 길을 가다가 울고 있던 노인과 마주친다. 전우치는 노인에게서 아들 이씨가 살인누명을 쓴 사연을 듣는다. 전우치는 죽은 왕씨로 변신해 원통함을 호소하고³⁴⁾ 이를 본 관원은 이씨를 방면하고 진범 조씨를

33) 전우치는 환로에 나간다. 그러나 출세욕 때문은 아니었다. 전우치는 관직을 준 의도를 알고 이를 역이용하려 "냉쇼하며 꺾하"(237쪽)에 나아가 자현한다. 출세욕이 아닌, 조정을 우롱하려던 심보다.

34) 김현양 옮김, 앞의 책, 227쪽. 나의 안회를 겁탈하고 쏘 날름 죽이니 이는 나의 김흔 원슈여늘 네 엇지 익미흔 니가의게 죄를 도라보닌는다 호고 문득 간디 업는지라 …… 조가를 엄형 쉼문하니 조개 능히 견디지 못하여 기기 승복호거늘.

엄형에 처한다. 살인누명을 벗겼으니, 전우치는 칭찬받아 마땅하다. 선행 연구도 대개 이 삽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 노인이 말한 사건 내막은 다음과 같다.

이미히 살인죄취 되여기로 설위호노라 운치 그 익미호를 즉시 무른디 노인 왈 우리 동리의 왕가란 스람이 이스되 그 계집의 인물이 고으미 닉 자식이 스통호여 왕너호더니 그 계집이 음난호여 또 조가와 통간호다가 왕가의 계 들키어 두 놈이 빗화 서로 구타호시 닉 자식이 마춤 갓다가 빗흠을 말너 조가를 보너엿더니 왕개 즉시 죽으미³⁵⁾

정리하면 이렇다. 한 동네에 왕씨, 조씨, 이씨가 살았다. 왕씨 아내는 이씨와 사통했고 조씨와도 통간했다. 왕씨는 아내가 간통한 사실을 눈치 채고 조씨와 싸웠다. 마침 그곳에 갔던 이씨는 두 사람을 말렸다. 왕씨가 죽자, 조씨는 문서를 위조해 이씨에게 누명을 씌웠다.

전우치는 이씨를 신원했다. 이로써 사건은 일단락되었다. 그러나 왕씨 아내나 이씨는 조처가 없었다. 왕씨 아내와 이씨는 사통했으므로 별 받을 사유가 충분했다. 그러나 전우치는 이씨를 신원하는 데 그쳤다. 왕씨도 죽고 조씨도 엄형을 받았으니, 왕씨 아내와 이씨는 거리낄 게 없어진 셈이었다.

이 삽화에서 전우치는 대가 없이 억울한 이를 돕겠다는 ‘선의’로 일을 벌였다. 하지만 정황을 면밀히 따지지 않았다. 이로 인해 전우치는 선의를 가지고 행동했으나 그 결과는 다소 빗나갔다. 그러나 그는 그런 줄 몰랐다. 속고 없이 자기 선의만 믿고 실천한 결과였다.

⑥에서 한채경은 욕심을 말미암아 일을 그르친다. 그런데 초점을 전우

35) 위의 책, 226쪽.

치에 맞추면 그가 사람됨을 따져보지 않은 점도 간과할 수 없겠다. 물론, 전우치는 “만일 더 닳아 흐면 큰일이 날 거시니 부디 조심하라”(233쪽)고 당부한다. 그러나 부릴 수 있는 도술만큼이나 줄 수 있는 도움은 다양할 터다. 전우치가 준 족자를 말미암아 한채경이 체포되었으니, 일단 돕겠다는 충동과 선의가 문제였다.

이후 전우치는 선전관이 된다. 선전관 시절 삽화는 ‘놀림’과 ‘다스림’으로 구성된다. ‘다스림’ 삽화에서 전우치는 살생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며, 상대를 꾸짖어 계도한다. 엄준을 토벌하고 효유하는 삽화, 중을 꾸짖는 삽화, 왕연희를 꾸짖는 삽화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들 삽화에서 전우치는 불살행(不殺生)의 신념을 지키며 제세에 일조한다. 특히, 대도 엄준을 토벌하는 삽화는 퇴치에서 그치지 않고 효유했다는³⁶⁾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전우치를 말미암아 도둑 무리는 양민이 된다. 이로써 전우치가 지닌 제세안민할 국량이 드러난다. 또 재상 왕연희를 다스리는 삽화 역시 선정을 베풀도록 관료를 꾸짖고 깨우쳤다는 측면에서 전우치가 지닌 좋은 자질을 보여준다. 결과적으로 ‘다스림’은 ‘제세’에 일조하는 모습으로써 전우치를 공권력으로 둘 만한 이유 곧 그가 지닌 좋은 역량을 보여준다.

진사 시절은 ‘놀림’과 ‘도움’이 번갈아 나타났다. 이로써 전우치는 세상을 소란케 하지만, 민중과 섞여 살 만한 인물로 나타났다. 미진한 점이 없지 않았으나 도술은 ‘안민’에 일조했다. 이어서 선전관 시절 ‘놀림’과 ‘다스림’이 번갈아 나타났다. ‘놀림’에서 전우치는 조정 서열을 어지럽히는 인물로 형성되었지만 ‘다스림’에서는 ‘제세’에 일조할 인물로 나타났다.

그런데 전우치는 선의로 도술을 부리면서도 목적의식과 거시 안목이

36) 위의 책, 247쪽. 여등이 반적을 도아 턴명을 항거하니 그 죄 만스무석이로되 너 특별이 스승이니 여등은 고향의 도라가 농업을 힘써 양민이 되게 하라.

없었다. 유자(儒者)라면 ‘평천하’까지 단계적 목표를 설정해 노력하겠으나, 전우치는 더 이상 유자가 아니었다. 전우치는 사안마다 도술을 부려 해결하면서도 최종에 무엇을 이루겠다는 고민은 없었다. 또 선도의 높은 경지도 관심 밖이었다. 그러면서도 전우치는 쉽없이 도술을 부렸다. 도술을 부리는 행위 자체에 도취되었다고 하겠다.

전우치는 옳다고 생각한 일을 도술로 실현했다. 포의 시절에 배치된 ⑮의 ‘정씨 납치 시도’는 양봉학을 돕겠다는 선의의 발로였다. 그러나 선의였을 지언정, 행위는 악행이었다. 전우치는 선의로 도술을 부렸던 까닭에 자신이 악행을 벌이는 줄 몰랐다. 도술이라는 큰 능력을 갖추고 잘못하는 줄 모르며 잘못을 저질렀으므로, 이 삽화에서 전우치는 함께 살기에 위험한 인물로 형상되었다.

다만 ‘악행’이라도 전우치가 지닌 ‘선의’는 변함이 없었다. 전우치가 지닌 선의는 강림도령의 지도 아래 적절히 실현되었다. 이는 전우치가 스승의 지도를 받는다면 도술을 제대로 쓸 자질을 갖췄다는 사실을 보여줬다.

이제껏 도술 행각을 살폈다. 전우치는 도술에 도취되었지만, 완전한 자기상실에 도달한 상태는 아니었다. 놀림, 도움, 다스림을 교차 배치한 전개는 그가 감발할 만한 자질을 지녔다는 사실을 보여줬다. 전우치는 대가를 바라지 않는 선의로 도술을 부려 타인을 돕고 세상을 정돈했다. 다만, 숙고가 없던 까닭에 잘못을 저지르기도 했다.

요컨대, 도술 행각으로써 형상된 전우치는 목적의식 없이 세상을 소란케 했지만, 선의를 가지고 행동하는 인물이었으며 스승의 지도를 받으면 도술을 제대로 쓸 만한 위인이었다. 전우치에게 필요한 것은 충동적 성정을 제어하고 높은 목표를 설정해 그가 지닌 좋은 자질을 감발할 스승이었다.

3. 서경덕 제자 도사의 의미

작중 전우치를 가르친 인물은 세 명이다. 세 명은 윤공, 강림도령, 서화담이다. 강림도령은 스승은 아니나 전우치를 지도했으므로 윤공, 서화담과 더불어 논의할 부분이 있다.

부친의 친우였던 까닭에 윤공은 전우치가 조언을 구할 가장 가까운 인물이었다. 그러나 환로에 나갈 뜻이 없자 전우치는 윤공을 찾지 않았다. 이유는 여럿이겠으나 타의로 맺은 사제 관계라는 점과 두려움, 그리고 윤공이 유자(儒者)라는 점을 꼽을 수 있다.

타의로 모신 스승이므로 전우치는 윤공을 어려워만 했지, 심적으로 의지하지 않았다. 또 윤공은 유자였던 까닭에 전우치를 제압할 능력이 부족했다. 결과적으로 전우치는 곁에 스승이 부재하는 상황에서 도술을 얻었다.

이후 전우치는 목적의식 없이 그때그때 제멋대로 도술을 부렸다. 쉽없이 도술을 부리면서도 전우치는 목적의식이 없었다. 전우치는 도술을 부리는 행위 자체에 도취된 모습을 보였다. 도술 행각 중에는 잘한 일도 있었고 말썽도 있었다. 또 선의를 가지고 도술을 부렸으나 결과는 빛나가지도 했다. 그러나 전우치는 무엇이 문제인지 몰랐다.

전우치의 무지는 ‘정씨 납치 시도’에서 단편적으로 나타난다. 전우치는 선의(善意)를 가지고 양봉학을 위해 과부 정씨를 납치하려 한다. 막 성사될 찰나 강림도령은 전우치를 제압한다. 굴복한 전우치는 제자 되기를 청한다. 다음은 해당 장면이다.

너피 계시고 집이 빈한하여 능히 봉양할 슈 업셔 부득이 님군을 속이미오 두 번지는 목숨을 도모호미오 이제 당시 결핍을 히호려 호든 명든 벗을 살오려 호오미니 원컨디 선심은 죄를 스호시고 선도를 가르치쇼셔³⁷⁾

전우치는 강림도령에게 사죄했다. 뉘우침처럼 보이거나 그렇지 않았다. 변명일 뿐이었다. 잘못된 일만 알았을 뿐 근인(根因)은 몰랐기 때문이다. 변명을 정리하면, 상황 상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이다. 그는 정작 잘못을 유발한 ‘마음가짐’은 성찰하지 않았다.

전우치는 환로에 나갈 뜻이 없자 제멋대로 도술을 부린다. 이는 앞서 말했듯, 전우치가 삶의 방향을 상실한 채 도술을 부리는 ‘행위’에 도취된 사실을 보여준다. 이 맥락에서 “선도를 가르”쳐 달라는 말을 이해할 수 있다. 이제껏 전우치는 선도의 높은 경지를 고민한 적 없다. 그는 강림도령이 보여준 더 대단한 도술에 감복했을 뿐이다. 따라서 선도를 가르쳐 달라는 말은 도법의 높은 경지를 갈구한 것은 아니다. 단지, 지금보다 더 뛰어난 술법만 바랐을 뿐이다.

이후 전우치는 산중(山中)에서 도사 용담을 도발한다. 이는 선전관 시절 성은에 감동해 “회과천선”(241쪽)을 결심한 뒤에도 선배 선전관을 놀렸던 전개와 동일하다. 반성과 이후 나타난 도술 행각은 전우치가 피상적 반성에 머물렀고 여전히 도술에 도취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때나 지금이나 전우치는 자신의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셈이다. 전우치는 강림도령의 도술에 감복했을 뿐, 진정한 각성에 이르지 못한 것이다.

앞 장에서 살폈듯, 전우치에게 필요한 것은 충동을 제어하고 높은 목표를 설정해 좋은 자질을 감발할 스승이었다. 서경덕은 전우치가 활개 칠 상황을 만든 다음, 도취되었던 자부심을 단박에 꺾는다. 이로써 스승이 지켜야 할 능력의 우위를 보였다.³⁸⁾ 고쳐 말하면, 전우치는 서경덕을 만나 자부했던 일에 실패하고 더 높은 경지를 봄으로써 도취에서 깨어났다. 이후

37) 위의 책, 270쪽.

38) 강림도령 역시 능력의 우위는 보였다. 그러나 강림도령이 활개 칠 상황을 만든 것은 아니었다.

서경덕은 모친 봉양을 허락해 전우치가 자숙할 시간을 주었다. 서경덕은 충격과 배려를 아우르며 전우치에게서 자발적 복종을 이끌어 냈다고 하겠다.

전우치는 강림도령을 만나 충격을 받았지만, 각성에 이르지 못한다. 그 결과 산중에서 용담과 대결을 펼친다. 반면, 서경덕에게 굴복한 전우치는 모친을 봉양하며 자숙했고 이후 자기를 객관적으로 보게 된다. 전우치의 변모는 서경덕은 전우치에게 구미호를 잡자고 말하는 장면에서 확인된다. 서경덕은 전우치에게 구미호를 석갑에 가두고 굴혈을 불지르자고 말한다. 이에 전우치는 “선칭이 그 여호를 업시하시면 진실노 일국의 만행”(279쪽)이라고 답한다. 구미호를 소탕하면 자신과 같은 이가 나타나지 않을 터이므로 ‘만행’이라 말한 것이다.

전우치는 여우를 말미암아 도술을 얻고 멋대로 나뉘었다. 여우가 없었다면, 도력과 도술도 없고 나라를 크게 소란케 하는 일도 없었을 터였다. 결과적으로 ‘일국의 만행’이라는 자신이 ‘일국의 불행’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의미라 하겠다.

윤공과 맺은 사제 관계는 타의로 맺은 면이 있었다. 반면, 강림도령과 사제 관계는 전우치가 자의로 맺고자 했으나 성사되지 않았다. 서경덕과 사제 관계는 자의와 타의가 혼효되어 있다.

서경덕이 먼저 “영주산의 드러가 선도를 닷그미 엷터호뇨”라고 말했다는 점에서, 시발은 ‘타의’였다. 그러나 이후 전우치가 긴 시간 동안³⁹⁾ 별다른 소동을 일으키지 않고 자숙하며 약속을 지켰다는 점에서 전우치의 ‘자의’도 나타났다. 전우치는 모친 삼 년 상을 마친 뒤 서경덕이 찾아와 행장

39) 김현양 교주, 앞의 책, 279쪽. 하직후 후의 집의 도라와 요술을 힘치 아니호고 모친을 봉양호더니 세월이 여류호여 운치 모부인이 졸호니 운치 네를 갓초야 선산의 안장호고 삼년을 밧드더니 일일은 화답이 왔거늘.

을 수습하라고 하자, “디희히여 가산을 훑터 노복을”(279쪽) 주었다. 전우치는 서경덕 제자 되기를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였던 것이다.

<전우치전> 결말에서 전우치는 서경덕을 스승으로 모시고 구름을 타고 영주산으로 날아갔다. 함께한 입산을 통해 서경덕은 도술이 아닌 도법으로서 ‘선도(仙道)’라는 높은 목표를 부여했다. 수련 목표를 두고 사제가 함께한 입산은 전우치가 진짜 도사로 거듭날 일을 암시했다.

영주산은 전생에 전우치가 채약선동으로 머물던 선계였다. 전우치는 서경덕 제자 도사가 됨으로써 선계로 귀환했다. 그러나 채약선동으로서 귀환한 것은 아니었다. 전우치는 서경덕 제자 도사로서 귀환했다. 적강한 채약선동이 선계로 귀환하는 조건은 진짜 스승을 만나 정신을 차리고 제자 도사가 되는 것이었다.

경판37장본 <전우치전>이 출간됨으로써 논란 있던 행보는 스승의 부재에 따른 ‘철없던 행동’으로 통합되었다. 또 전우치는 전도록(傳道錄)에 수록되는 것을 넘어 스승을 지닌 도맥의 일원으로 자리매김했다. 이로써 경판37장본은 여러 이본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김동욱본은 전우치를 노비 소생으로 설정하고 중국 임금을 희롱하는 내용을 마련해, 그를 ‘제자 도사’로 두지 않았다. 이는 경판37장본 <전우치전>에 나타난 ‘자발적 복종’에 반발의 결과였다.

신문관본은 전우치가 깨달음을 얻는 대목을 명시했다.⁴⁰⁾ 경판37장본 <전우치전> 속 전우치는 숙고의 시간을 가져 변모한 모습이 나타났으나 ‘깨달음’은 명확하지 않았다. 그 결과 전우치가 손오공처럼 삼장법사 제자 면서도 제자답지 못한 행동을 때때로 할지 모른다는 우려를 남겼다. 신문관본은 깨달음을 얻는 대목을 명시함으로써 경판37장본 <전우치전>이

40) 최지선, 「<전우치전>의 욕망 구현 방식과 서사적 의미」, 『돈암어문학』 28, 돈암어문학회, 2015, 242쪽.

남긴 우려를 불식시켰다. 또 신문관본은 깨달음을 종교적 차원으로 끌어 올려, 전우치를 스승이 될 만한 도사로 격상시켰다.

4. 결언

이 글은 <전우치전>을 '스승 얻는 이야기'라는 관점에서 읽었다. 스승을 만나 선계 영주산으로 귀환하는 노정은 '스승의 부재' '스승의 필요성' '스승과 조우' '스승을 통한 귀환'으로 나타났다.

작중 전우치는 호정을 삼켰고 이후 천서를 익혔다. 호정을 삼키는 삽화에서 전우치가 지닌 미숙한 성정, 천서를 익히는 삽화에서 스승의 부재가 부각되었다. 이어서 전우치는 좌충우돌하며 세상을 시끄럽게 했다. 이는 여우가 아닌, 전우치가 지닌 미숙한 '성정'과 '스승의 부재'에 기인했다.

미숙한 성정에 더해 스승의 지도를 결여했던 까닭에 전우치는 멋대로 나섰다. 도술 행각은 놀림·도움·다스림으로 나뉘었다. 세 가지 성격의 삽화를 통해 잘한 일과 못한 일은 고루 형상되었다. 이로써 '스승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전우치는 최종적으로 서경덕 제자가 되었다. 서경덕은 도술에 도취된 전우치를 깨우치려, 그가 활개 칠 상황을 만든 다음 제압했다. 이로써 스승이 지녀야 할 능력의 우위를 보였다. 전우치는 자부했던 일에 실패함으로써 도취에서 깨어났다. 이후 서경덕은 모친 봉양을 허락해 숙고할 시간을 주었다. 서경덕은 충격과 배려를 아우르며 전우치에게서 자발적 복종을 이끌어 냈다. 또 함께한 입산을 통해 서경덕은 '선도 수련'이라는 높은 목표를 부여했다. 이로써 전우치가 진짜 도사로 거듭날 일을 암시했다.

기존 문헌은 단편적 일화를 꼽아 전우치를 '환술가'나 '도술가'로 포핍

하는 데 치중했다. 경판37장본은 달랐다. 경판37장본이 출간됨으로써 잘 하고 못한 일은 스승의 부재에 따른 ‘철없던 행동’으로 통합되었다. 경판 37장본을 통해 전우치는 서경덕 제자 도사이자 도맥 일원으로 자리매김 했다. 경판37장본이 출간됨으로써 향후 ‘도사 전우치’를 본격적으로 다룰 토대가 마련되었다.

참고문헌

1. 자료

- 『낮선 세계로의 여행』(박희병, 정길수 편역, 돌베개, 2007)
『던운치전』(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청구기호: D7B 120)
『도술이 유명한 서화담』(광동서국, 1926, 『(舊活字本) 古小説全集』 21, 인천대학교, 1986)
『도술이 유명한 소강절』(광동서국, 1926, 국립중앙도서관)
『동유괴』(박재연, 김영 교주, 『동유괴』, 이회, 2004)
『보은기우록(報恩奇遇錄)』(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귀 K4-6811)
『성호사설(星湖僊說)』(이익,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이규경,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잡기류초(雜記類抄)』(이덕형, 국립중앙도서관, 한古朝48-204)
『청장관전서(靑莊館全書)』(이덕무,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해동이적(海東異蹟)』(홍만중 저, 황윤석 증보, 신해진·김석대 역주, 『증보 해동이적』, 경인문화사, 2011)
『홍길동전·전우치전』(김현양 옮김, 문학동네, 2010)
『萬曆野獲編』(明 沈德符)
『五雜俎』(明 謝肇淛)

2. 논저

- 김영영,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동방학연구소에 소장된 번역필사본 《동유괴》에 대한 고찰」, 『中國語文論叢』 83, 중국어문연구회, 2017, 61~81쪽.
문범두, 「<전우치전>의 형성과정과 이본간의 변모양상」, 『문학과 언어』 7, 한민족어문학회, 1990, 228~233쪽.
변우복, 「일사본 『던운치전』의 도술적 성격」, 『한국어문교육』 5, 한국어문교육연구소, 1996, 45~69쪽.
_____, 「《전우치전》 研究」, 한국교원대학교 박사논문, 1998, 31~32쪽.
안창수, 「<전우치전>으로 살펴본 영웅소설의 변화」, 『한국문학논총』 59, 한국문화회, 2011, 73~116쪽.

- 이종필, 『田禹治 전승의 양가적 表象과 그 역사적 맥락』, 『어문논집』 75, 민족어문학회, 2015, 33~56쪽.
- 이현국, 『<전우치전>의 형성과정과 이본간의 변모양상』, 『문학과 언어』 7, 문학과 언어연구학회, 1986, 143~162쪽.
- 이후남, 『고전소설의 요괴 서사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8, 1~221쪽.
- 정운채, 『<여우구슬>과 <지네각시> 주변의 서사지도』, 『문학치료연구』 13, 한국문학치료학회, 2009, 327~362쪽.
- 정환국, 『전우치(田禹治) 전승의 굴절과 반향』, 『민족문화사연구』 41, 민족문화사학회, 2009, 213~239쪽.
- 조성두, 『수운 최제우와 홍암 나철의 영웅신화적 요소에 대한 비교연구』, 『신종교연구』 31, 신종교연구학회, 199~201쪽.
- 조혜란, 『민중적 환상성의 한 유형: 일사본 <전우치전>을 중심으로』, 『고소설연구』 15, 한국고소설학회, 2003, 55~81쪽.
- 최윤희, 『<전우치전>의 구성과 의미에 대한 재고찰』, 『우리어문연구』 48, 우리문학회, 2015, 163~185쪽.
- 최지선, 『<전우치전>의 욕망 구현 방식과 서사적 의미』, 『돈암어문학』 28, 돈암어문학회, 2015, 227~259쪽.

ABSTRACT

<Jeon Woochi-jeon> Read through the 'Story to Get the Mentor'

Hong, Hyun-sung

At the end of <Jeon Woochi-jeon>, Seo Gyeongdeok and Jeon Woochi enter 'Mt. Yeongju'. Mt. Yeongju was the divine world where Jeon Woochi stayed as the mountain of deities in his before life. <Jeon Woochi-jeon> deals with the story of Jeon Woochi who comes down to the secular world and lives his life as he wishes but later goes back to where he belongs with his mentor Seo Gyeongdeok.

In <Jeon Woochi-jeon>, Jeon Woochi is described as one that messes up the world with all the fussing around. This is attributed not to the influence of the book that either Hojeong or fox carries but the immature nature of Jeon Woochi. Jeon Woochi acquired Taoist power with no mentor and commanded it with no reflection. There are some good or bad things he does, and this is the result of accepting the existing 'Jeon Woochi story' unbiasedly.

<Jeon Woochi-jeon> does integrate the fragmented evaluations that have been fixed about Jeon Woochi over a long period and position him firmly as a member of the line of Taoist Magic. As it was published, Jeon Woochi who had been excluded from the society and divine world both came to be positioned stably in the world of deities.

Key Words JeonWoochi-jeon, JeonWoochi, SeoGyeongdeok, Mentor, Mt. Yeongju, Taoist Magic

논문투고일 : 2018.04.15

심사완료일 : 2018.05.09

게재확정일 : 2018.05.15